



2021 무주 그랑폰도(메디오폰도)대회가 오는 30일 청정 무주군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무주 그랑폰도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변을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전거 매니아들 '총출동'

무주 그랑폰도·메디오폰도 대회 30일 '팡파르'

예체문화관 주차장에서 출발, 적상산에 도착

2021 무주 그랑폰도(메디오폰도)대회가 오는 30일 청정 무주군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국내 자전거 매니아들이 총 출동하며, 무주읍 예체문화관 주차장(오전 7시 30분)에서 출발해 적상산 주차장에 도착(오후 2시 30분)한다. 경주방식이 아닌 비경쟁 코스 완주 방식으로 치러진다.

(사)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사)전북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2021 무주 그랑폰도·메디오폰도 대회는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그랑폰도(139.05km)와 메디오폰도(83.86km)방식으로 치러지며, 무주읍 예체문화관 주차장을 출발, 부

남~안성~적상~설천~무풍 등을 거쳐 적상산 정상 주차장에 도착하는 코스다.

군은 앞서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지난달부터 대회요강 공지와 선수 모집 코스 답사, 교통안내요원 모집, 교통 유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펼치고 민간의 준비태세를 찾았다. 공무원과 경찰, 자원봉사자(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등을 운영·유도 요원으로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별도의 개·폐회식은 하지 않고 발열체크(등나무운동장 입구, 최북미술관 입구, 국민체육센터 입구) 근무자 마스크 착용)와 방역소독(예체문화관 등) 등에도 역점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참가선수

와 진행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위생·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발열 등 이상 증세 시 대회 참가 불가 등)을 담은 내용을 인터넷과 문자로 공유 중이다. 이번 대회에 320여 명이 교통통제와 운영·유도요원으로 투입된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서종열 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회를 치르는 만큼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회 준비로 민간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마추어와 프로 구분 없이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다. 무주 대회는 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그랑폰도'는 이탈리아어로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뜻이며, '메디오폰도'는 스페인어로 '반절'이라는 뜻으로 유럽을 비롯한 각 국에서 자전거 마라톤 이벤트로 개최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내년부터 대학 2학년생도 프로야구 진출 가능

KBO, 엘리 드래프트 도입

2022년(2023년 입단)부터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2학년 학생들도 KBO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KBO(총재 정지택)는 25일 2021년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엘리 드래프트(조기 지명) 제도 및 신인 드래프트 참가신청 규약 신설을 의결했다.

엘리 드래프트는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수차례 요청한 제도다.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빠른 KBO 리그 입성을 원하면서 4년제 대학 등록 선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엘리 드래프트가 도입되면 2학년 선수들도 KBO 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어 저학년부터 선의 경쟁으로 대학 선수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엘리 드래프트는 미국 프로야구 MLB와 프로농구 NBA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 프로배구, 프로농구도 4년제 대학 선수가 프로행을 위해 꼭 4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시행시기는 2022년(2023년 신인)으로, 4년제 및 3년제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엘리트 드래프트 참가가 가능하다. 엘리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당해 연도에 KBO 리그 팀과 계약해야 한다. 단 고교 졸업 예정 연도에 지명 받았으나 구단과 계약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엘리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고 대학 졸업 예정 연도에 참가 가능하다. /뉴시스

올해 전통스포츠 보급사업 선정

전북체육회, 예산 2000만원 확보... 10월 전주시 민속경기 한마당

전북체육회가 2021년도 전통스포츠 보급 사업에 선정,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종목을 체험하고 참여한 다양한 체육활동 행사 지원을 통해 전통종목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대회(생활체육대회)와 강습, 페스티벌(운동회·행사) 등으로 나뉜 이번 사업에서 전북체육회는 페스티벌 분야에 선정됐다.

이에 오는 10월 전주시 일원에서 민속경기

한마당 행사를 열어 ▲전통종목(전통무용·단체줄넘기·제기차기 등) 시연 ▲전통놀이(투호·고리걸기·윷놀이·골렘쇠 등) 체험 ▲명랑 운동회(박터트리기·공굴리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 행사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도민들이 평소 접하지 못하는 민속경기 체험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 및 보급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 학생 태권도시범단 '일냈다'

전국대회 상위권에 다수 랭크

안효민 등 7명 전북협회장배 태권도대회 1·2·3위 기염

최효영 등 7명 용인대총장기 전국대회에서 1위 차지 등



무주군학교태권도선수부와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이 전국 대회에서 상위권에 다수 랭크하며 태권도 성지 무주군의 이름을 드높였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학교태권도선수부 안효민 학생(무주중 / -67kg급)과 엄다은 학생(설천초 / -54kg급), 임서연 학생(무주중 / -68kg급)이 지난 22일과 23일 무주군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58회 전북협회장배 태권도대회(주최·주관: 전라북도태권도협회·무주군태권도협회) 겨루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김석현 학생(무주중 / +77kg급)과 박종서 학생(설천초 / -50kg)이 2위를, 엄다민 학생(무주중 / -49kg급)과 진민성 학생(설천초 / -46kg급)과 강수지 학생(안성초 / -50kg급)이 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19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1회 용인대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주최·주관: 용인대학교) 시범 부문에서는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 최효영 선수(무주중)가 여자 중등부 '고공 발차기' 1위, '고공발차기 회전 1단 차기' 1위에 올랐으며 자유구성 부문 점수까지 합산해 개인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설천고 이재연 선수는 남자 고등부 '고공 발차기' 부문 1위에 올라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의 저력을 보여줬다.

무주군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 때문에 훈련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태권도 성지 출신다운 면모를 전국에 유감없이 보여준 우리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며 "군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훈련하면서 태권도 위상과 태권도 성지 무주군의 명성을 드높일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전 군민 대상 태권도 보급과 확산을 위해 태권도 활성화 사업을 추진(5억3천여만 원)하고 있으며 꿈나무 육성을 위해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과 학교태권도선수부 육성(지도자 수당 및 학생들 훈련, 시범 등 지원), 관내 13개교에 대한 태권도 교육과 수련학생 도복 및 띠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전북협회장배와 용인대총장기 대회장에서 참가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관련 책자를 배포하면서 내용을 홍보했으며 태권도 위상 강화와 태권도의 올림픽 영구종목화, 무주 태권시터의 완성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호소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무주=전문선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